

01 교회소식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는 교회

전 성도 성경 통독의 열기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의 한 목회자는 GCN 방송을 통해 성경의 복음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02 생명의 말씀_ 지혜 시리즈 7

편벽과 거짓이 없는 지혜

성결한 마음을 이루면 편벽 없이 선으로 보고 느끼며 생각함으로 법사에 공의롭고 정직하게 분별할 수 있다.

03 기획특집

응답받는 데에도 법칙이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저서 '내가 시행하리니를 통해 아브라함, 엘리야, 다윗 등 믿음의 선자들이 응답받은 비결을 살펴보자.

04 간증

하나님을 의지하니 축복이 저절로...

주께 받은 사랑으로 업무에 임해 승진의 축복을 받은 신혜숙 권사와 하나님을 의지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이일형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621호 2014년 2월 16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영의 마음을 이루는 비결, 전 성도 성경 통독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 느끼며 신앙의 열기 더해져

오늘날 성경을 가까이하지 않고 읽지도 않는 크리스천이 많고, 혹은 그 내용을 하나의 이야기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성경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즘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 열풍으로 성경 읽는 성도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평소 성구 한 절 암송과 성경 한 장 이상 읽기를 강조해 온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새해를 앞두고 전 성도 영적 성장을 위해 성경 통독을 당부한 바 있다. 아울러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해 주었다.

성도들이 쉽게 대할 수 있는 신약 성경부터 소리 내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 하신 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찾아 노트에 적어 기도할 것과 말씀대로 이룬 것들은 하나하나 지워가는 즐거움에 대해 알려 주었다.

최근 2월 2일 지역장·조장·구역장 헌신에 배에서도 성경 통독의 중요성을 또 다시 피력했다. 이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주님을 닮은 영의 마음을 이루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에 아동, 학생,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전 성도가 성경을 읽는 감동과 은혜 속에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성경을 통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버리지 않고 하지 않는 것들을 기록해 기도하고 있다.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 시간, 또는 점심 시간을 활용하거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성경을



읽으며 성도들의 마음에는 주님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2-5남선교회 이상철 집사(49)는 "틈틈이, 잠들기 전에 또박또박 소리를 내서 통독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읽으니 예전과는 다른 감동이 임하고, 성경의 장면이 영상처럼

마음에 그려집니다."라고 말했다.

3-1여선교회 김애자 집사(50)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사랑, 목자의 사랑을 깨우치니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편한 자세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은 무릎 꿇고 읽는데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

와 능력을 주시니 행복합니다."라고 했다.

한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록하여집이니라"(딤후 4:5)는 말씀에 따라 매일 저녁 9시부터 열리는 '다니엘절야' 기도회에 참석해 불같이 기도하며 영적 성장을 위해 힘차게 믿음의 행군을 하고 있다.



"GCN 방송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 선물이에요"

낸시 샤프 블리자드 목사(미국, 천국의 소망교회)

TV 안테나를 설치하고 기독 채널을 찾던 중, GCN 방송을 발견했습니다.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어디서도 맞볼 수 없던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지요. 분명 GCN 방송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후 이 목사의 『천국』 책을 요청해 읽게 됐는데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묘사된 천국의 실상과 천국이 여러 층으로 구분돼 있는데, 그에 따라 상급이 다르다는 사실에 놀랐지요.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해 상급을 쌓아야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지난 1월 12일에는 제가 담임하는 캘리포니아 주 L.A. 시 할리우드 지역의 '천국의 소망교회'에서 김항열 전도사님

(캘리포니아만민선교센터 담임)을 강사로 '1일 부흥회 겸 손수건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김 전도사님은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생긴 등뼈 통증을 치료받고, 나타샤 성도는 우울증을 치료받았지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닫혔던 마음 문이 열려 회개하고 이제는 변화되고자 충만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저는 이재록 목사의 신앙서적들을 읽으며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참 목자를 만났다는 기쁨으로 성령 충만하지요.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편벽과 거짓이 없는 지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17~18)

사람들이 편견이나 선입관을 가지면 전혀 사실이 아닌 일에 대해서도 사실인 것처럼 확신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음이나 생각 등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편벽이라고 말합니다. 편벽이 있으면 거짓을 날기 마련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거짓과 편벽이 없어야 진실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정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무엇이 참인지 정확히 분별할 수 있지요. 그럴 때 수정같이 맑고 보석같이 아름다운 마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편벽과 거짓이 없는 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편벽과 거짓이 없으려면 사랑과 공흠의 마음이 있어야

편벽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공의롭고 정직하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사에 치우침이 없다면 누구를 대하든지 한결 같습니다. 외모나 경제적 여건, 학벌 등 상대가 가진 조건에 따라 대하는 태도를 달리 하지 않지요. 무엇을 하든지 편벽이 없으면 사랑과 공흠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배워도 마음에 사랑과 공흠이 없으면 바르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에 '원수도 사랑하라' 하지만 자신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취향과 성품, 내가 옳다고 하는 것에 맞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과 공흠이 없는 만큼 좌우로 치우치고 상대의 언행이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쉽게 상대를 판단 정죄합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볼록렌즈로 보면 뚱뚱해 보이고 오목렌즈로 보면 훌쩍해 보입니다. 만일 렌즈에 비치는 모습만 보고 "당신은 뚱뚱하다. 말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본 대로 말한다." 하지만 분명히 실제와 다르니 거짓말이 됩니다. 이로 인해 상대가 피해를 입고 상처받을 수도 있지요. 자신의 편견 속에 상대를 바라보면 그 안에는 필연적으로 거짓이 섞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하고 사랑과 공흠이 있는 사람은 상대의 어떠한 모습을 봐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공흠히 여기는 마음으로 감싸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공흠은 생명을 살리는 선한 열매를 맺는 반면, 편벽되어 행하면 판단과 정죄로 진실을 왜곡하며 생명을 잃게 만드는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옳다는 편벽된 시각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이에 맞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단정지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자 안식일을 범했다고 했지요. 원래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안식을 취하라'는 의미이지요. 병든 사람을 고치거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편벽된 속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판단 정죄한 것입니다.

2. 편벽됨으로 거짓 열매를 내는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편벽됨으로 일상에서 얼마나 거짓 열매를 내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부모가 두 자녀를 야단칠 때도 그렇습니다. 형에게 왜 다쳤냐고 물었을 때 "동생이 먼저 때렸어요."라고 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동생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생에게 물어 보면 "형이 장난감을 뺏으려고 해서 그랬어요."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부모가 형의 말만 듣고 동생을 혼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부모가 형을 편애하거나 동생이 늘 말썽을 부렸다면 형의 말만 믿을 수 있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라면 모든 것을 공의롭고 정직하게 분별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유익과 생각에 맞춰 진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벽된 시각이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거짓된 언행이 나옵니다. 가령,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는 말을 들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며 믿지 않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하며 어떻게든 허물을 덮어 주려고 합니다. 반면 평소애 싫어하던 사람이나, 나쁜 선입관이 있는 사람의 소문은 금방 믿어버립니다. "전에도 이러한 잘못을 하더니 또 그랬네. 그 사람 어쩐지 마음에 안 들더라." 하며 그를 싫어하는 마음을 정당화시키기 까지 합니다. 편벽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을 알리고 하기보다는 소문을 쉽게 받아들이고 상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맞은편에서 오던 사람의 눈을 피하면서 급히 지나갑니다. 바쁘거나 판생각을 하느라 주변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시력이 나빠 못 보았거나 화장을 하지 않아 민망해서 사람들을 피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편벽된 시각이 있으면 나쁜 쪽으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참 무례하네. 전에 부탁한 것을 안 해 주어서 그런가?" 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 안에서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눈이 가려져 진실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지혜로 범사에 진실하려면

첫째로, 약한 사람에게 치우치는 것도 진리 안에서는 편벽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출 23:3). 이해 관계에 따라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 편을 들어서도 안 되지만, 가난하고 약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두둔한다거나 친분이 두텁다고 정에 치우친다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흔히 강자와 약자가 다를 때 약자 편을

드는 것이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든 치우치지 않고 사랑과 공흠의 마음으로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하지요.

둘째로,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면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입관이나 편견이 있으면 직접 보고 들어도 진실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남의 말만 듣고 선불리 판단하거나 추측만으로 단정한다면 큰 잘못을 범할 수 있지요. 그러니 매사에 보고 듣고 판단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셋째로, 편벽과 거짓이 없으려면 감정과 사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친분이 있거나 자신에게 잘해 주는 사람에게는 더 너그러운 잣대를 적용합니다. 예컨대 친하지 않은 사람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교만하여 질서를 어긴다. 불의하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 원칙을 어기면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또 회의 때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의견을 내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호적인 사람이 의견을 내면 유연한 자세를 취합니다.

따라서 범사에 자신의 감정이나 사심이 작용하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과 관계된 일이라면 더욱 공정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지요. 특히 직분상 윗사람이라면 더욱 근신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치우치지 않게 분별했으니 '이 정도는 관찮겠지.' 생각한 것도 남들이 보기에는 정과 욕심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마 7:5)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는 들보와 같이 큰 죄가 있으면서 상대의 티를 보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버리고 성결되면 사람의 마음이나 일의 전후 상황까지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선으로 보고 느끼며 생각함으로써 범사에 모든 것을 공의롭고 정직하게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차: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번 출구) /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 651,5528,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3:00 PM
9:00 PM
11:00 PM
11:00 PM
7:00 PM
8:00 PM
9:00 PM
4:00 PM
3:00 PM

주일 저녁예배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공요철차예배
수요예배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다녀오실 때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의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하나님께서서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며 응답의 하나님에 대해 알려 주셨다. 과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것일까?”

아브라함처럼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았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을 때에도 그 즉시 순종할 수 있었다(히 11:19).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자녀, 건강, 부와 명예 등 모든 축복을 주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으며 원망 불평을 한다. 또한 믿는다고 했다가 의심하고,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믿을까 말까 하는 간사한 마음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약 1:6~8).

엘리아처럼 불같이 기도하는 사람

엘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과 아하시야 왕 시대에 하나님 뜻을 선포한 선지자이다.

그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로 나라에 삼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큰 비의 응답을 받았다(왕상 18:42~45). 그가 어찌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창자가 쪼이는 듯한 고통으로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였다.

야곱 역시 압박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기도했다. 그러자 그를 죽이려고 사백 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오던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화목을 이뤘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합한 중심을 소유한 사람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용사 골리앗을 대항해 싸우겠다고 사울 왕에게 말한다(삼상 17:32). 믿음이 있으니 담대했던 것이다. 갑옷도 입지 않은 채 물뿔 다섯 개와 막대기를 들고 나아가 물뿔로 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그의 칼로 그를 죽인다. 이에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 앞에 아무리 큰 문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행 13:22)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합한 중심이 되면 무엇이나 응답받을 수 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

고넬료는 이탈리아대의 백부장으로서 이방인이지만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행 10:1~2). 이러한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 고넬료의 일가친척, 친구까지도 성령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읍바에 살던 다비다라는 여 제자가 병들어 죽자, 같이 있던 제자들이 베드로 오기를 간청한다. 이에 베드로가 도착하자 생전에 다비다에게 은혜를 입은 과부들이 울며 그녀가 그들을 위해 지어 준 옷을 다 꺼내 보였다. 이에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을 내보낸 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시체를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죽은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다. 평소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다비다의 행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다.

솔로몬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백성을 치리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정성껏 드렸다. 일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장소와 시간, 제물, 제사 방법 등에 제약이 따랐다. 온 회중과 함께 솔로몬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얼마나 기쁘시게 했던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셨다. 솔로몬은 부귀영화가 아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고, 이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지혜는 물론, 부귀영화까지 넘치도록 주셨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를 의미한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의를 좇는 사람

요셉은 동정녀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였다. 그런데 자신과 동침한 적이 없는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가만히 꿇고자 한다. 만일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 마리아는 당시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요셉은 이런 착하고 의로운 마음이 있었기에 주의 사자를 만나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마 1:19~23).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까지 자신의 주장대로 따르도록 요구한다. 이로 인해 불화가 일어나도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해도 화평을 깨는 사람을 의롭다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버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재록 목사 저서 『내가 시행하리니』 1편 <응답의 하나님> 중에서

<p>GCN 방송 www.gcntv.org</p> <p>2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p> <p>▶ 2014.2.16~2.22</p> <p>February</p>	<p>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십자가의 도 1-5 • 빛나는 성전 • 육체의 결여 5-9 • 창세기 강해 56-60 • 믿음의 분량 15-19 • 천국 2-6 • 일곱영 3 • 우리 삶의 등불 8 	<p>GCN TV 설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결을 위한 자세 1 (이수진 목사) • 눈물의 열매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10 (이희선 목사) • 생명수 3/믿음의 분량 3 (신동초 목사) •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정구영 목사) • 목자의 마음 (천우진 교육전도사) • 믿음의 경주 (조소영 교육전도사) 	<p>예능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15-16 • 천양드려요 15-16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15-16 • 향기 15-16 • English 7-8 • 플로리스트 6-9 • 아름다운 예배 8 • 천양과 경배 (3) 80, 84-89, 99 	<p>해외성회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연합대성회 1 • 회상 1 <p>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A/S 문의 1577-2073</p>
--	---	--	--	--

“경감 승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혜숙 권사 (3대대 32교구, 54세)

경찰에 몸담은 지 벌써 28년이 됐습니다. 저는 비행 청소년들을 주로 담당하는 청소년계에서 범죄 수사 및 선도 활동,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및 학생과 학부모에게 예방 강의를 해왔습니다. 또 미아나 가출인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조속한 귀가를 위해 수사를 벌여 왔지요. 때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담당부서가 불분명한 문제도 있었지만 제 일처럼 여기며 늦은 시간까지 각종 상담전화나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든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자 힘써왔지요.

저는 비행 청소년들을 대하면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얼마나 마음 쓰시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자 했지요.

그들 중에는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부모마저 외면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나쁜 길로 빠져들고 꿈도, 희망도 없이 자포자기한 경우가 많지요. 이런 아이들에게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풀어주시고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후 그들이 변화되어 자신도 남을 도와주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 올 때면 보람을 느끼며 감사했습니다. 어느 해에는 도움을 받은 학부모들이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을 올려서 표창을 받기도 했지요.

새해에도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감 진급을 위해 시험을 준비해야 했지만, 이런저런 일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3일, 뜻밖에도 1차 업무성과 우수자로 승진대상자 후보에 들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승진심사는 많은 요소가 작용하기에 최종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주변의 도움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저는 든든한 지원자이신 하나님께 의뢰하고 1월 5일,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1월 10일, 경감 승진심사에 합격할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랜 세월 제 힘으로 무엇을 하고자 몸부림칠 때에는 그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친 후에는 비록 바라던 것이 안 되어도 기뻐하고 감사했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늘 상대의 유익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당회장님의 말씀을 명심해 민원인들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뿐인데, 승진의 축복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하나님

저희 가족은 1991년, 경기(驚氣)를 자주 일으켜 사경을 헤매던 세 살짜리 동생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치료되면서 만민중앙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역사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후 28세에 공군 장교로 입대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입대했기에 저의 기도제목은 취업이었지요. 저는 대학원에서 기록관리학을 전공했기에 연구직 공무원인 기록연구사(행정직 6급 상당)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록연구사란 모든 기록의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공무원 공개 채용 시험과는 달리 연구직 공무원 특별 채용시험은 수시로 제한된 인원을 선발하는 방식이기에 저는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 근무지가 서울이기를 바랐고, 전역 시기와 맞물려서 전행이 이뤄져야 했기에 날짜를 놓고도 기도했습니다. 2012년 말, 때마침 서울시에서 기록연구직 공무원 한 명을 뽑는다는 공고가 났습니다. 최종합격 발표는 제가 전역 신고를 하는 2013년 6월 28일이었지요.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고, 마치 합격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최종면접에서 불합격되고 난 뒤, 마치 제가 갖고 있던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내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지요. 또 언제 공

고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공고가 나온다 해도 다시 공부할 일이 막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문제에 부딪히니 제 모습에서 믿음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중앙부처 소속기관에 배치될 기록연구사 채용 공고가 난 것입니다. 저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기도하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요. 2013년 10월 11일, 당회장님께 시험 전반을 놓고 기도를 받았습니.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을 앞두고 11월 17일, 당회장님께 말씀드리니 “응답받으세요.” 하시며 악수해 주셨지요.

저는 합격의 확신이 있었지만, 겸비한 마음으로 금식과 작정도를 올리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12월 13일, 최종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공무원의 경우 시험성적순에 따라 임용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데, 수석으로 합격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치됐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열심히 업무를 습득해 교회의 기록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나의 앞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일형 집사 (5청년선교회, 32세)

국내 지교회, 지정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동평로 168(부암동)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2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지평동 1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북 괴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56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만민교회 경남 말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죽도동),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주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 2길 제3동 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나운동)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변 순화대로 637(학곡리 2-번지)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자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월피동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결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4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